

# 도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통하여 본 장소 이미지 분석

## - 청계천 복원에 대한 일간지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이지은(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 서론

2005년 10월 1일, 복원된 청계천은 공식적으로 개통되었다. '인공수로', '거대한 도시분수' 등의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개통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서의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5일, 청계천을 방문한 누적 인원이 2,0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개장 초기였던 10월 이후의 동절기인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도 월평균 1,473천명이 방문하여, 청계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3월 이후 계절적 변화로 인하여 더 많은 관람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와 같이 도시 내의 공간으로서의 청계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계천은 시민의 여가공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대형상업시설이 자리하는 복합적인 도시 공간이기에, 청계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하여 청계천이 도시 공간으로서 지니는 장소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생활양식이 공존하는 도시 문화 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은 일정한 도시 공간이 지니는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여 대안적인 도시 문화 공간 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도시 문화 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의 의미

청계천이 복원된 이후 도심부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그 자체로 물리적 환경 개선의 효과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제고의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즉, 청계천은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부상했고, 개장 이후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서울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청계천 지역이 광의의 도시 문화 공간으로서 지니는 가치는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서울 도심과의 관계 및 입지 속에서 청계천이 지니는 '지리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청계천은 정치적 중심지이자 시민생활의 중심지이며, 세계 교류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의 다양한 도심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은 '도심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심지 인접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1)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보도자료 참조

둘째, 청계천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도시 공간이다. 청계천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도심 하천으로서, 청계천 복원은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청계천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이자 여가놀이 공간이며 커뮤니티 공간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청계천은 ‘역사문화적인 하천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셋째, 청계천은 한국의 근대화가 시작되고 이를 견인한 산업공간으로서 ‘산업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계천에서는 현대적인 업무기능과 더불어 전통적인 제조업 기능이 공존하며, 산업간, 지역간의 긴밀한 산업연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시도하는 소규모 단위의 산업체들이 집적하여 있다. 따라서 청계천은 긴밀한 연계된 산업복합체, 창업센터, 혁신기지, 윈스톱 쇼핑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산업경제적 기능의 중추지’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청계천은 다양한 테마의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는 ‘문화관광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연생태, 역사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산업경제 등의 테마에 따른 다양한 문화자원들은 산재하여 있으며 이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광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어 ‘도심의 시민문화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이무용, 2005).

### 3. 청계천 지역의 이미지 및 정체성의 변천

도심하천으로서의 청계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미지와 정체성에 대한 담론의 변화를 경험했다. 도심하천으로서의 청계천은 크게 ‘하천시대’, ‘복개시대’, ‘복원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시대에는 도심 자연하천이자 시민의 생활터전으로서(전우용, 2001), 복개시대에는 산업화, 근대화의 엔진이자 도심 산업문화의 정점으로서, 복원시대에는 문화도시 서울의 핵심지역이자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하는 견인차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담론의 변화(표 1)를 경험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위와 같이 청계천은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복개시대 이후의 대기오염과 소음으로 인한 쾌적하지 못한 도심 공간이자 역사유적 멸실 및 훼손 등으로 역사성이 파괴되고 인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쇠락한 도심 공간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나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으로 도심의 역사, 생태, 문화를 회복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청계천 지역에 대한 이미지 및 정체성에 대한 담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미지 담론을 분석하여, 청계천 지역에 새롭게 부여되는 장소 이미지?정체성을 파악하고 도심 문화 공간으로서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볼 수 있다.

### 4. 청계천 복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 - 복원 전후의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복원이 공식적으로 완성된 200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개통 전후 3개월 동안

표 1. 청계천 지역의 이미지 및 정체성의 변화

시기		이미지 · 정체성	
		긍정적	부정적
하천 시대	조선시대 (청풍계천, 개천)	[도심자연하천] 시대[서민들의 생활터전] • 빨래터, 놀이터 • 문화공간(담교놀이, 편싸움, 연등행사)	[가난 · 불결 · 재해의 상징] • 빈민들의 움막촌/거지들의 토굴 • 빈민들의 무허가촌
	일제시대(청계천)	[도심 남북의 사회적 경계선] • 민족상권의 보호망	• 홍수/범람/오염/화재/전염병 • 범죄의 온상/위생과 치안의 사각지대
복개 시대	해방이후~1950년대	[소의계층의 생활터전] • 피난민/이농민들의 정착지	
	1960, 1970년대	[산업화/근대화시대의 엔진] • 섬유수출기지 • 전국 최대 도매상권 • 가전제품의 메카 • 서민들의 희망의 공간(인력시장)	[가난 · 재해 · 소의 공간] • 판자촌/우세식변소 • 화재/수해/치안 • 영세공장(노동착취의 현장)
	1980, 1990년대	[도심산업문화, 서비스업의 중심지] • 만물상 • 동대문 패션디자인밸리 • 야간쇼핑문화	[도심낙후지역] • 교통혼잡/오염/공해/악취/소음  [사건사고의 온상] • 범죄도구의 출처 • 음란물 유통의 메카
복원 시대	2000년대	[문화도시 서울의 대표지역, 세계도시 서울로의 견인차 지역]	

의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언론(신문기사 및 보도자료)동향을 분석하여 청계천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청계천 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공간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재구성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공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지역 및 장소의 이미지를 해석하는 문화지리적 방법론은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주관적 공간 인식은 언어를 통하여 상호주관성을 띤다(Tuan, 1977, 1991)'는 사고에서부터 비롯된다. Shields는 관광과 같은 직접적인 문화적 매체 뿐만 아니라 신문 및 방송 등의 문화매체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들에 의해 개인의 공간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공유된다고 주장했다. 즉, Shields는 공간에 대한 인간 의식화 과정에 대한 Lefebvre의 변증법<sup>2)</sup>을 토대로 공간의 사회적 구성(social spatialization)을 언급했다(Shields, 1989).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계천에 대한 신문기사 및 보도 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이들을 사회적 해석이 가능한 일련의 기호집합체로서의 '텍스트'로 보고 이에 삼

2) Lefebvre는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및 재현의 공간이라는 원리를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형성된 주관적 공간 인식이 '장소(place)'를 만들어내고, 개인의 상호주관적인 '장소이미지'는 규범적 담론과 권력에 의해 매개되어 공간이 다시금 사회적 권력 형성과정에서 개입하는 과정을 규명했다. 이와 같은 Lefebvre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변증법에 대해 Shields는 공간에 대한 문화적 관념 및 실천의 생산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입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차별적인 가치들을 파악하는 문화적 방법론이 된다. 물리적 환경이나 진실로서의 사건은 '기사화' 되어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차원으로 공유된다(Sharp, 1996). 따라서 담론체계로서의 텍스트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context)들에 의해 해석될 수 있으며, 텍스트 안에 내재되어 공유된 장소에 대한 사회적 시선들을 통하여 장소가 지니는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청계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도시공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청계천 복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통계적 분석

200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청계천과 관련된 유의미한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는 334건으로, 이들 중 긍정적 시선은 전체의 61.1%(204건)이었으며 부정적 시선은 26.3%(88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1개월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계천 복원의 공식적인 개통일인 10월 1일이 포함된 10월 상순에 모든 성향의 언론 건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으나 비율적으로는 개장 한달 후인 10월 하순 경에 긍정적인 언론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언론 건수는 10월 상순과 11월 상순, 중순 모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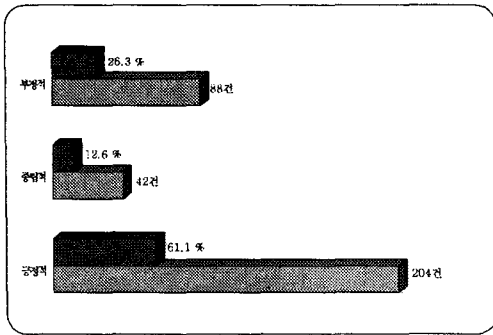


그림 1. 청계천 복원에 대한 언론의 시선

청계천 복원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10개의 소재<sup>3)</sup>로 분류된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소재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서울 및 서울 도심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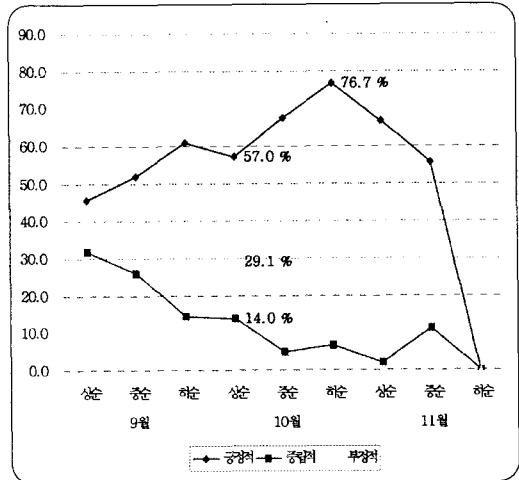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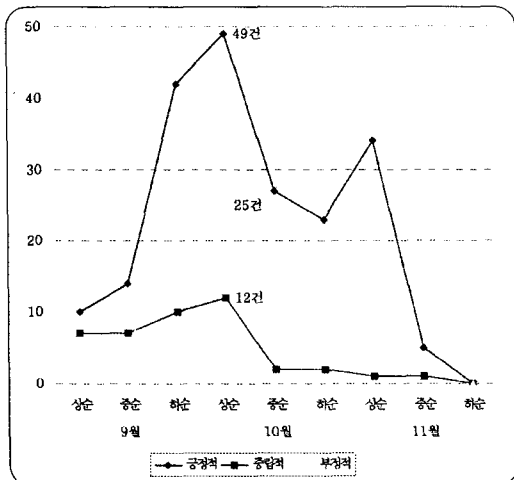


그림 2. 청계천 복원에 대한 언론의 시계열적 성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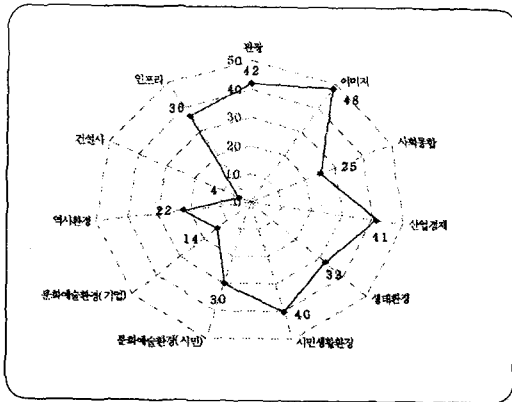


그림 3. 청계천 복원에 대한 언론 시선의 소재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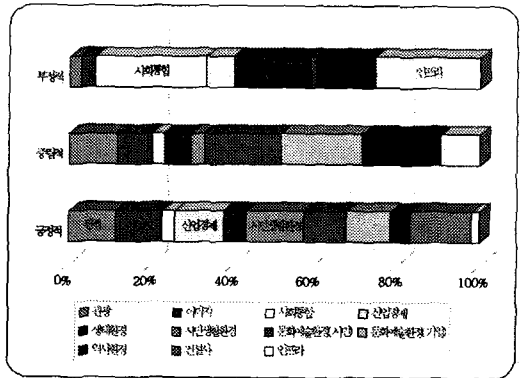


그림 4. 청계천 복원에 대한 언론 성향의 소재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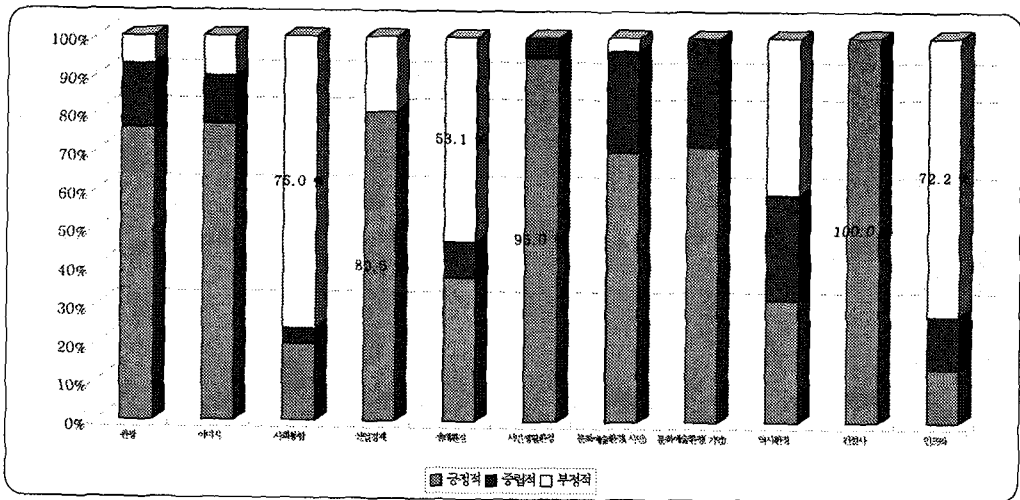


그림 5. 청계천 복원에 대한 언론 시선의 소재별 분석

이미지(48건)이며,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42건) 및 산업경제 효과(4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업의 문화예술 마케팅 자원 및 시민의 문화예술생활환경으로서의 청계천에 대한 시선을 합하면 44건으로 청계천의 문화예술환경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시선 역시 언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시선을 지닌 언론 건수 중에서는 시민생활환경, 이미지 개선, 산업경제, 관광자원 순으로 청계천의 기여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시선을 지닌 언론 건수 중에서는 인프라의 부족, 미흡한 사회갈등 관리(사회통합), 생태환경으로서의 특성 간과 순으로 청계천 복원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1.관광자원 / 2.이미지 / 3.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 4.산업구조 및 산업경제 / 5.생태환경 / 6.시민생활환경 / 7.문화예술환경(시민 및 기업) / 8.역사환경 / 9.건설사 / 10.인프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관광과, 이미지, 시민생활환경, 문화예술환경, 산업경제 등의 항목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언론의 시선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건설사와 관련하여서는 기념비적인 건설에 대한 소개 등이 언급되는 바 해당 건수 모두 긍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통합이나 인프라, 생태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비판적인 언급을 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청계천 복원에 따른 사회 갈등 관리, 편의 시설 및 안내·홍보 인프라 확충 및 생태자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의 청계천 관리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2) 청계천 복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질적 텍스트 분석

### ① 서울의 명소로서의 청계천

언론을 통하여 본 청계천 복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서울의 관광명소로서 청계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월 1일 공식적인 개장 전에도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로서의 청계천에 대한 관심이 있어왔으며, 개장 이후에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국인들의 방문을 언급하고 이용행태, 방문자 규모 및 해외 보도 자료 등을 인용하는 등 관광명소로서의 청계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청계천을 방문한 외국인(1152명) 중 견학방문자는 65%(749명), 중국인 단체 관광객 급증, 청계천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조선 0905)'
- '상암구장, 청계천 지구촌 명소로, "청계천과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각광받는 서울의 명소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0월 1일 복원공사가 완료되는 서울 청계천변에 프랑스 파리의 센강변 같은 '노천카페 거리'를 조성할 계획(문화 0915)'
- '청계천 복원 그 후 도심이 되살아난다. 넓어진 보행로, 걷고 싶은 도시로 변신. 청계천이 서울 도심을 '걷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는 이른 아침 조깅족들이 눈에 띄는가 하면, 여유 있게 집을 나서 청계천 산책로를 따라 걸어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청계천은 중랑천을 통해 독섬 서울숲과 '녹색축'으로 연결되면서 도심에 걷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의 보행로도 넓어졌다. ...청계천은 이미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청계천에서 동화면세점 또는 덕수궁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만들면 도심을 오가는 길이 훨씬 편리하고 가까워질 것"(조선 1005)'
- '청계천 도심관광명소로 자리매김. ...청계천은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태학습장이나 소풍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청계천은 이밖에 지방과 해외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문화 1031)'
- '서울 4계절 신명소 탄생 '느낌이 달라요'. 서울 신명소 4곳이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울들어 연이어 개장한 서울숲, 청계천, 국립중앙박물관과 2002년 물을 연 하늘공원은 연일 인해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계절에 따라 이들 명소를 골라가며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다. 꽃피는 봄날에는 서울숲, 실개천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름철에는 청계천이 좋다. 가을에는 하늘공원에 들러 시원한 바람과 역새 부대끼는 소리를 듣고, 겨울에는 문화와 역사의 흥취를 만끽할 수 있는 중앙박물관을 찾아보는 게 제격이다. ...청계천, 실개천 여울소리.(문화 1112)'

### ② 시민들의 일상문화공간으로서의 청계천

청계천 복원에 대한 기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문화에서의 새로운 즐길거리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

민문화공간으로서 도심 근무자의 근무지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및 주말 가족 나들이의 장소 등으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청계천 거리 예술가' 및 기업들의 천변 공간 개방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환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청계5가 오간수교 부근에서 '문화의 벽' 제막식이 펼쳐진 가운데 분수가 높이 치솟아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세계 0915)'
- '청계천 24시, 삶이 바뀐다. 꽃 피고 물고기가 뛰어 오르는 청계천, 더 이상 꿈이 아니다...열린 물길따라 도심의 하늘도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열린다. 물길은 빌딩 숲속을 가로지르며 아스팔트 도시에 향기를 불어넣고 사람들의 삶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청계천은 작지만 크다. 청계천의 힘(2년 만에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바뀐 느낌'이라고 말했다...주변에서는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를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는 사람들이 많았다.)/청계천, 세상과 세대를 연결하는 실핏줄(놀라운 것은 한 자가 조금 넘는 깊이의 청계천이 거리와 거리, 세대와 세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소통의 실핏줄'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새로운 청계천 라이프스타일(청계천은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있다. 청계천이 내려다보이는 빌딩에서 일하는 김OO씨는 청계천변에서 근무하고 식사하고 데이트도 즐기는 '청계천족'이 됐다.)/사라지는 것들('없는게없다'는 황학동 도깨비시장...지금은 노점상이 인근 옛 동대문축구장으로 가 활기가 줄었다. 비디오가게들도 성인용품점을 겸한 곳으로 바뀐 곳이 많았다.)/청계천의 저녁(왕십리 용두동 마장동 등 인근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상업공간에서 휴식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청계천의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청계천의 꿈(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은 가운데 동대문패션타운만 내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루었다...출근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과 퇴근을 서두르는 이들이 함께 청계천을 바라본다.)(동아 0923)'
- '가족끼리, 연인끼리, 휴일 청계천 구름인파. 청계천이 공식 개통된 뒤 서울 도심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었다...“청계천의 모든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볼 생각”...청계천 개통과 함께 공식활동을 시작한 청계천 아티스트들은 도 다른 구경거리다.(서울경제 1002)'
- '청계천 따라 문화도 뿔뿔', '청계천 아티스트' 36명 마음 등 공연. 청계천 주변이 서울시민문화마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수준 높은 거리 예술가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 주변 문화시설의 가을 프로그램도 풍성하다...운현궁에서는 고종명성황후가례식 등이 가을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경향 1006)'
- '소풍같은 회의, 청계천으로 오세요. 청명한 가을을 맞아 콘크리트 벽과 형광등 조명에서 벗어나 청계천, 양재천 등 도심의 자연 속에서 회의를 하는 기업들이 있다...“젊은 직원이 많은데다 자연을 찾는 웰빙 조류까지 겹쳐 야외 회의가 회사 문화로 자리 잡았다.”(중앙 1018)'
- '나는야 청계천의 서울리안. 청계천 주변 직장인들의 패션트렌드에 변화가 일고 있다. 청계천 산책로가 새로운 출·퇴근 코스로 각광받으면서 정장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직장인이 눈에 띄게 늘었다...청계천 통수 이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뉴요커를 낳았듯이 청계천이 서울리안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패션도 주변 환경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는데 청계천이 곡선의 편안함과 자연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패션 트렌드 변화는 당연할 수 있다”(해럴드경제 1025)'
- '오후를 알차게. 청계천에는 요즘 밤마다 야경을 즐기려는 회사원들과 가족, 연인들이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더불어 청계천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먹을거리 골목과 특이한 음식점을 찾아보는 재미도 쓸쓸할 것 같습니다.(문화 1103)

- '夜~청계천으로 가자. 청계천은 이제 밤이 즐겁다...밤이면 몰려오는 사람들을 맞이 위해 청계천의 시작 지점인 관철동 일대나 종로3가 국일관 주변, 광장시장 등은 하루가 다르게 변신하면서 갖가지 구경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물찾기를 하듯이 감춰진 먹을거리와 볼거리 등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 청계천의 밤을 즐겨보자.(문화 1103)'
- '만나보셨나요? 청계천 아티스트. 물과 사람이 흐르는 청계천에 문화도 함께 흐른다...모두 서울문화재단이 청계천변에서 시민과 예술가의 교류를 확대하고 풍성한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9월 관철동 피아노 거리에서 공개 오디션을 개최해 선발한 청계천 아티스트들이다...“새로 복원된 청계천에서 맑은 물과 함께 여러 가지 공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서울이 아닌 외국에 있는 기분”, “시민들도 거리공연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문화 1110)'

### ③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청계천 복원으로 기존의 청계천 주변 지역의 산업 구조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노점상 및 황학동 벼룩시장 등의 상권이 동대문 운동장 지역으로 이전되는 현상이나 지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입지 변화 및 새로운 도심기능산업의 이전 등이 예측되고 있다. '청계천 효과' 라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언급됨과 동시에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권으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공구상가나 도소매 상점들의 상대적인 시장 상실이나 지대 상승에 대한 지불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이탈 등의 부정적인 효과 등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청계천 복원 '상권 활력소', 경쟁력 있는 특화업종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그러나 지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일부 업종은 후방 배후지역으로 밀려남(한국 0907)'
- '청계천 시너지 효과' 로 청계천 산업지도 변화(서울 0908)'
- '청계천 경제적 효과는...투자 대비 효과가 무려 59배에 이르는 셈이다...연간 이백만~삼백만 외국 관광객이 찾아오고 31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국경제 0927)'
- '도심 한복판에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주변 상가와 주택에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양한 점포가 생기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 주변 아파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계천 복원의 모델이 된 미국 프로비던스의 워터플레이스파크가 도시 가치를 크게 상승시킨 점을 미루어볼 때 기대감이 높다.”(매일경제 1001)'
- '청계천 인근 재개발 속도 붙는다...“주거 상가 호텔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 일대가 재개발 되면 강남구 삼성동의 코엑스몰 못지 않은 도심 상권이 형성될 것.”...“청계천 복원과 함께 주변부 재개발이 이뤄져야 청계천 복원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파이낸셜 1108)
- '청계천 남은 과제는 도심재개발 표류, 노점상 대책도 막막. 이런 화려함 뒤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도심 재개발 제자리 걸음/일시불합 노점상 전전궁궁(경향 1004)'

### ④ 생태하천 복원으로서의 청계천 복원에 대한 의심

청계천 복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태하천으로서의 청계천을 복원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로서, 도심에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수변공간과 자연학습장 등이 형성되었다는 점 등은 친환경적인 도심 공간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인공수로' 및 '거대한 도시분수'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 '하루 청계천에 투입되는 물은 12만톤 정도. 이렇게 물을 퍼올리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17억원 정도입니다.(매일경제 0927)'
- '청계천은 복원되지 않았다. 세상에 다시 등장한 청계천을 보는 우리의 눈길이 꼭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복원의 모습/많은 에너지와 관리비용 감수한 인공하천/청계천엔 문화재가 없다/복원의 정치화와 그 이면/진정한 생태적, 역사주체적 복원 기획의 박탈이 우리의 비극(프레시안 1001)'
- '청계천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청계천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현재 복원된 청계천은 분명히 자연하천이라기 보다는 조경시설에 가깝다. 즉 하천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실상은 거대한 인공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기만이자 사기극이다.(브레이크 뉴스 1004)'
- '청계천 복원은 시작일 뿐. 서울환경연합은...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 서울환경연합이 바람직한 도시하천 모델을 제시할 목적으로 만든 하천위원회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 "청계천 복원이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공수로'를 만든데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이는 효용 위주의 자연관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국민 1101)'

#### ⑤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으로서의 청계천 복원에 대한 의심

청계천의 복원으로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의 복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청계천 복원에 따른 언론의 시선은 청계천 다리의 복원 및 근현대사의 장으로서의 청계천 역사성 회복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해석할 수 있다.

- '옛사진 전하는데도 원형 모른다. 청계천 모전교 멋대로 복원. 서울시가 청계천 상류에서 출발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첫다리, 모전교를 건설하면서 옛형태를 알 수 있는 사진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리를 완공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 발굴됐을 때는 이미 모전교 하부 기초공사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사진에만 의지해 다리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한겨레 0924)'
- '어쨌거나 청계천은 지금 하늘 아래 모습을 드러내었고 우리는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아야 하는 시점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의 절반이 이루어졌을뿐 유감스럽게도 절반은 홍물로 남게 될 것이다. ...되살려놓은 청계천의 경우, 줄속이 빛은 결과라고들 하지만 문명의 구조물로 포위돼 있는 것이 더 심각하다. ...고유의 문화를 잃는다는 것은 민족성을 잃는 것보다 같다.(중앙 0928)'
- '역사의 흔적 부족한 청계천. 모습을 드러낸 청계천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호안석축 나머지 대부분은 중랑하수처리장에 나뒹굴고 있다. ...역사와 문화의 복원에는 실패했다고 평가.(조선 1011)'
- '청계천 복원 의미 아직도 옥신각신. 진정한 복원의 의미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현재의 청계천은 가짜가 정통을 밀어내는 디즈니랜드류의 싸구려" ..."복원의 기준을 어느 시기로 정할지도 논란거리. 옛건물을 원형 그대로만 복원하는 것도 의미있겠지만 사람들이 문화재를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동시대 미감에 맞게 변화시켜 활용하는 유연한 관점도 필요하다."(한겨레 1103)'
- '투쟁의 거리가 창조적 거리로. ...근로기준법을 알리기 위해 전태일이 분주하게 지나다녔던 이른바 구름다리는 비를 막을 수 있는 현대적인 유리 덮개가 씌워져 '노동의 통로'가 아닌 '패션의 통로'로 변신해 있었다.(국민 1111)'

#### ⑥ 청계천 복원에 따른 사회갈등의 야기 및 사회통합에의 소홀

청계천의 복원에 의해 노점상 및 점포들은 기존 '청계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거나 새로운 갈

등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 후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의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차별천', '장벽천' 등의 비난도 파악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이동 및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선해야 함.(한국 0901)'
- '청계천은 '장벽천',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 중심의 도시마인드의 결과물, 인간중심의 도시를 강조하는 보편적 설계 부재,(레이버투데이 0907)'
- '운치는 있되 배려는 없는 청계천, 도시환경은 개개인이 바꾸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유니버설 디자인적 접근이 절실(한국 0911)'
- '청계천에서 올었네. 가끔 공구상가를 지나다가 아저씨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진 새로 단장한 공장을 보고있으면 너무 쓸쓸해 눈물이 나왔다. ...청계천이 복원된다기에 낡은 근대에 갇혔던 이분들의 삶도 복원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으로 이분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파괴되었다. 병든 아내를 둔 봉어 아저씨는 거의 손님이 끊겨 봉어를 2만원어치도 못 팔았고, 고물노점상을 하던 아저씨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 청계천을 떠났다. ...이곳이 환경과 인간과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청계천이란 말인가. 사람대하는 방식이 여전히 폭력적인 낡은 근대에 머무는 청계천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부자들 위한 경관으로 전략 물길이 보이는 청계천가를 걸었다. ...부유한 이들의 주차장과 공원으로 화려하게 바뀌는 청계천 거리는 너무 외로웠고, 나아질 기미 없이 반복되는 저 힘겨운 삶들이 서러웠다.(경향 0924)'
-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청계천이 흐르게. 모든 언론이 앓다투어 청계천 복원의 성공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도시 빈민은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수십년 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 3천여명중 2천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성교주의에 치우쳐 콘크리트 어항을 만들고 있으며, 환경역사문화재 복원이라는 슬로건은 이미 무색해진지 오래다. ...청계천변에서 생일 일구고 있는 도시빈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 아닌가?(한겨레 1001)'
- '우린 노점상 수용소에 있다. 난민보다 더하다. 청계천에 있을 때와 다르다. ...우리는 자갈이 아니다. ...'우리(노점상)도 외국처럼 청계천에서 합법적으로 세금도 내며 '청계천 명물'이 됐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 집회를 연다고 했더니 남의 잔치에 왜 방해하려 하냐고 하더라. 우리도 청계천의 주인인데 남의 잔치라니"(오마이뉴스 1001)'
- '청계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화려하게 부활한 청계천 뒤편에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터를 잃고 생존 위기에 선 사람들을 되짚어 본다. 황학동에서 20년째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안영희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5남매를 키웠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곳까지 닿지 않아 월세조차 제대로 낼 수 없다. ... 삼일아파트 철거 위 지하 월세방으로, 빈집 공동체로 뿔뿔이 흩어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삼일아파트 철거 뒤 지하 월세방으로, 빈집공동체로 뿔뿔이 흩어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한겨레 1027)'
- '관심집중 청계천 '빛과 그림자' EBS '톨레랑스' 오늘 방송. ...그러나 화려하게 부활한 청계천 뒤편에는 복원 때문에 삶을 잃고 생존 위기에 몰린 사람들과 사라져가는 청계천의 역사, 생태문화가 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뒤에서는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차별천'이라며 원망을 털어놓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아직' 미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고 프로그램은 전한다.(경향 1027)'

### ⑦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인프라 확충 소홀

청계천 복원 이후에 발생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안전, 홍보, 편의시설 및 접근 등의 인프라

부족에 관한 것이다. 특히 2005년 10월 1일 공식 개장일에 발생한 추락사고 등의 안전문제, 화장실 부족 및 휴식공간의 부족과 같은 편의시설 미비, 출입을 위한 통로 배정과 좁은 인도 등의 인프라 관련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 '외국 저명 도시건축전문가들, 성공적인 복원 사례이나 수변 및 둔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계단 부족이 옥의 티. 천변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부족(문화 0907)'
- '청계천 이런점은 고쳐야. 되살아난 청계천엔 옥에 티도 있다. 과거를 복원하고 현재를 담는 대규모 공사를 하다보니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이 없지 않은 것이다. ...오간수교 인근 인도는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아름답던 청계천과는 판판이다. ...청계천과 중랑천의 경계가 철망으로 막힌 것도 또다른 '티' 였다.(경향 0928)'
- '청계천 다리안전사고 무방비. 하지만 시민들이 주로 찾는 청계천 다리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안전설치를 해놓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해명은 공색해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청계천 22개의 다리 중 삼일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리들이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니다.(매일경제 1002)'
- '복원된 청계천 안전사고 비상. 청계천의 안전문제가 서울시민들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효율적인 인원 통제 시급/안전시설 태부족/낮은 난간과 좁은 보행로(세계 1005)'
- '청계천 빌딩들 인파몰살. 청계천에 하루 평균 3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인근 빌딩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땅값 상승과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관리와 쓰레기 처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청계천 주변 화장실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었다. ...청계광장 인근 빌딩들은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한국 1027)'
- '3無. 청계천 주변상가 화장실 덕본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주된 이유는 청계천이 3무(無)로 불릴 정도로 화장실 매점 휴지통 등 3가지 시설이 태부족하기 때문.(한국경제 1101)'
- '아슬아슬 청계천, 길은 좁고 난간은 낮고 사람은 넘치고. 청계천 개통일인 지난달 1일 삼일교에서 50대 여성이 떨어져 숨진데 이어 또다시 야경을 구경하던 시민이 천변 난간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다리 난간에서 장난치는 장면을 많이 보는데 그럴때마다 아찔한 생각이 든다.(국민 1104)'

## 5. 결론

청계천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심하천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생활공간으로서의 이미지 및 정체성으로부터 복개 전후의 산업공간이자 쇠락한 도심지역으로서의 이미지 및 정체성, 그리고 복원 이후의 시민여가공간이자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존재하는 문화관광지역으로서의 이미지 및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청계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변화여왔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 전후 3개월간의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에 내재된 사회적 시선을 살펴봄으로서, 복원 이후의 청계천이 지니는 도시 문화 공간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가 지니는 도시 문화 공간으로서의 나아갈 바를 제고할 수 있다. 언론동향을 분석한 결과,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하천의 환경생태기능의 복원,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사회통합과 갈등관리의 미흡함 등이 청계천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로 나타났

다. 그러나 관광명소나 시민여가문화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의 지역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청계천 지역이 지니는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은 청계천을 물리적으로 되돌린 도시계획사업임을 넘어서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단절되어 있던 도심 공간과 기능들을 연결하며 나아가 도시 거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도심재생프로젝트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관련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청계천 장소마케팅 기본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2003,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 이무용, 2005, “청계천 문화벨트 조성의 기본 컨셉과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39권 제4호, pp.519-537.
- 전우용, 2001, “청계천과 천변: 공간과 상징의 역사적 변천”, 서울학연구소, 청계천: 시간, 장소, 사람.
- Shields, R., 1989, “Social spatialization and the built environment: the West edmonton mall”,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7, pp.147-164.
- Tuan, Y. F., 1979, “Sight and Pictures”. Geographical Review, 69(4), pp.413-422.
- Tuan, Y. F., 1991, “Language and the making of place: a narrative-descriptive approac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4).

## 인터넷사이트

-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http://www.sisul.or.kr>